

지역성·국제성 잇는 광주-타이 공동 파빌리온, 푸켓서 열린다

(재)광주비엔날레, 제4회 타이랜드 비엔날레 첫 공식 참여

광주비엔날레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해외 비엔날레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내년 1월31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제4회 타이랜드 비엔날레 파빌리온(살라) 전시에 참여한다. '광주-타이 살라 영원: 버네쿨러 호라이즌'을 주제로 한 이번 파빌리온 전시는 태국 푸켓의 비지트 판와 부두(Visit Panwa Pier)에서 개최된다.

‘영원’ 주제…공존 가능성 모색
설치·사진·회화 등 작품 선보

태국 기획자 판딧 찬로차나킷과 협력해 꾸려진 이번 전시에는 광주 기반 작가 3인을 포함한 국내 작가 4명과 태국 작가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양국 참여자들이 전 과정을 함께한 협업형 프로젝트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사업의 첫 해외 사례다.

전시는 ‘버네쿨러 경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삼는다. ‘버네쿨러’는 지역·사용자 문화·환경을 반영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토착적·일상적 표현을 가리킨다. 특정 지역의 전통, 재료, 관습이 시대와 환경 속 사람들의 공간 감각과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바라보는 시선이다. ‘지역성’은 얼핏 폐쇄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시는 이를 차이와 경험을 발현해내는 역량으로 다시 읽어낸다. 각 지역에서 걸려진 감각과 사유의 방식을 하나의 장에 펼쳐 보이며, 그 안에 잠재된 다양한 삶의 언어를 탐색한다는 취지다.

올해 4회를 맞은 타이랜드 비엔날레 주제는 ‘영원(Eternity)’이다. ‘광주-타이 살라 영원’은 이를 먼 미래의 시간 개념이 아닌, 서로 다른 존재와 세계가 지속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지역의 기억, 재료, 기술로 구축된 작업들은 순환과 회복의 감각을 통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는 하나의 경관으로 제시된다. 중심에서 비껴있던 이야기들을 가져와 공존의 가능성이 열리는 공통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참여 작가 8명은 각자 일상, 돌봄, 저항, 역사 등 다양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해온 작가들이다. 전시를 위해 설치·사진·회화·영상 등 8점의 작품 중 7점이 새로 제작됐다. 태국 작가 타왓차이 푼투사왓다는 신체를 의미의 장소로 다시 펼쳐 보이며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성찰한다.

한국 작가 하루.K는 전통 회화의 방식을 참조해 음식과 과자를 재료로 풍경을 재구성한다. 이세현은 사진을 통해 도시·국경·영토의 의미를 추적하며, 장소가 어떻게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획득하는지 묻는다.

이는 새로운 땅과 문화를 향한 여정을 탐구하는 태국 작가 아진조너선 아진킵의 작업과 연결된다. 아진킵이 하늘을 바라본다면, 와나 원리앙

군은 가족의 삶을 토대로 땅과 경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한다.

김재민이는 과거 쓰나미 대피 경로를 직접 달리며 이동의 흔적을 기록하고, 비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건설 노동자들을 공적 공간 속으로 다시 호명한다.

김자이는 지역 식물로 만든 차를 매개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수라자 통추아는 인간의 개입으로 변형된 풍경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를 드러낸다.

전시를 기획한 판딧 찬로차나킷은 “이번 프로젝트는 희망, 즐거움, 가능성과 탐구, 자아의 발견에 관한 전시”라며 “관객들이 문화와 언어, 역사적 맥락을 가로지르며 공존의 가능성을 목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광주비엔날레는 이번 파빌리온 참여를 계기로 해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국내 작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김자이가 작가 ‘휴식의 기술’ 작업을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루.K 작가가 산수와 음식이 결합한 ‘음식 산수’ 오브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정태관 화가 ‘12·3 내란 1년’ SNS 특별전

풍자 수목화 21점 공개

정태관 화가가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역사의 아픔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비대면 특별전을 연다.

2일 정 화가에 따르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내란 1년 어둠의 그날들’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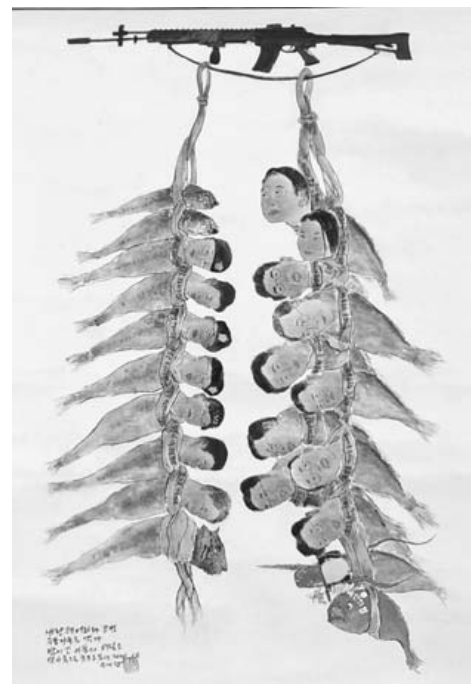
그는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동자들이 여전히 거리를 확보하고 법적 다름을 벌이는 현실을 예술로 기록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다크 특별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공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풍자와 해학이 담긴 수목화로 풀어낸 2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은 ▲윤석열 계엄령 선포, 역사는 흐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윤석열 체포영장 구속 거부 퍼포먼스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구속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자들을 엮다 등이다.

전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원작은 정태관 화가의 작업실인 ‘화가의 집’에서 실물로 관람할 수 있다.

앞서 정 화가는 지난 2018년부터 그해의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자들을 엮다.

가장 큰 이슈를 십이지상(十二支像)과 점목해 매년 25점 이상의 작품을 제작해 왔다.

정 화가는 “이번 전시는 내란의 잔해를 조속히 끄고 역사의 어두운 면을 되돌아보기 위한 성찰의 공간”이라며 “과거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부터 5·18의 악몽을 되살린 12·3 내란까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예술 작품으로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년버벌 신체극 ‘프랑크 앤 슈타인’ 특별 프로그램…6일 광주예당서 움직임 워크숍·관객과의 대화

국립극단과 광주예술의전당이 공동 제작한 년버벌 신체극 ‘프랑크 앤 슈타인’이 오는 6일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랑크 앤 슈타인’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현대적으로 변주한 년버벌 신체극이다. 중앙의 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무대에서 박사와 피조물의 여정을 병렬로 펼치는 독창적 구성으로, 1막 종료 후 관객이 직접 시점을 이동해 2막을 관람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오전 ‘움직임 워크숍’과 오후 ‘관객과의 대화’로 구성된다.

오전 10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대연습실에서 열리는 움직임 워크숍에서는 지역 전문예술인과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프랑크 앤 슈타인’의 핵심 표현 언어인 ‘신체매임’을 배워본다. 같은날 오후 2시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남궁호 연출이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 신체 중심 연출 방식, 장면 구성 과정 등 창작 비하인드를 들려주며 관객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한편 ‘프랑크 앤 슈타인’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